

■ 화제의 뉴스 ■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의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출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분양사업은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대부분이 회수되는 데 반해, 임대사업은 준공 시점에 사업비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2015년 3월 17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총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보증을 해주며, PF대출과 주택기금 대출 등을 묶어서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 주택의 소유보다는 임차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보증은 최근 거주 형태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 [전자신문 - 국토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최대 70% 사업비 보증\(2015. 3. 17.\)](#)